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척추

논문제목 **50세 이상의 퇴행성 요추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측면사진의 의의**

영문제목 **Comparative Anaylsis of Sagittal Alignment between Simple Radiograph of Lumbar Spine and Whole Spine Radiograph in Adult over 50 Years**

발 표 자 박경훈 책임저자 김환정

저 자 김환정, 강종원, 박건영, 구제윤, 권원조, 박경훈, 최원식

기 관 명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, 대전 보훈 병원 정형외과

서론 :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요추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(유합술)가 빈번히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써 인접 분절의 문제, 시상면 불균형 같은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. 퇴행성 요추 질환 진단 시 흔히 단순 방사선 검사로서 양와위 요추 전후방 및 측면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는데, 단순 요추부 측면 사진과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에서의 척추 지표와 골반 지표를 비교하여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이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요추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(유합술)가 빈번히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써 인접 분절의 문제, 시상면 불균형 같은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. 퇴행성 요추 질환 진단 시 흔히 단순 방사선 검사로서 양와위 요추 전후방 및 측면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는데, 단순 요추부 측면 사진과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에서의 척추 지표와 골반 지표를 비교하여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이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결과 : 단순 요추부 측면 사진과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에서 요추 전만각은 각각 평균 35.1도(± 14.4 도), 37.7도(± 16.8 도)로 증가하였고 천추 경사는 각각 평균 32도(± 9.6 도), 31.7도(± 9.8 도), 골반 경사는 각각 24.3도(± 10.2 도), 24.2도(± 11.1 도)로 측정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 시상 수직축이 전방 5cm 이상인 경우가 100명 중 38에 었고 1군(5cm 이상)에서 단순 요추부 측면 사진과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에서 요추 전만각은 각각 31.9도(± 16.7 도), 28.1도(± 16.8 도)로 감소하였고, 2군(5cm 이하)에서는 요추 전만각은 각각 37도(± 14 도), 43.6도(± 14 도)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천추 경사 및 골반경사는 두 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

결론 : 퇴행성 요추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시상 수직축의 전방 이동(5cm 이상)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므로 단순 요추부 측면 사진 외에 기립 전신 척추 측면 사진을 촬영하여 시상면 상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퇴행성 요추질환, 단순 요추부 사진, 전신 척추 사진, 시상면 정렬